

지역 **메아리**

김제시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접수

김제시보건소는 위생관리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이는 식품접객업소 시설의 위생적 개선과 서비스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낭비적인 음식물화를 개선하는 등의 녹색 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것이다.

신청접수는 9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이며, 희망업소는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김제시 보건소 보건위생과에 방문 접수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생관리담당(☎540-138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신청한 업소는 음식문화개선 여부, 위생상태, 서비스수준, 맛 평가 등을 통하여 전체 일반음식점 수의 5% 이내로(현재 김제시 모범음식점 30개소)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여 오는 10월말까지 최종 확정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요촌동 행정복지센터 새롭게 단장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새로운 환경에서 신속하고 친절할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3개월에 걸쳐 2층 내부를 대대적으로 수리하였으며 깨끗하고 산뜻하게 자연친화적으로 내부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일주일에 6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50여명의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환경에서 취미활동과 여가생활에 더욱 정진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김제시는 2017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 6만6,000여건, 56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재산세액 대비 9%의 세액이 상승하였는데 관내 개별 공시가를 상승과 지방세 감면 규정의 일부 축소 등의 원인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번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에 부과되었으며, 주택분은 경우 분세기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되며, 10만원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김제시는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10월 10일까지 2기가 연장됨을 안내하고,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거나 납기내에 자진 납부를 당부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선정

완주군, 사업비 66억원 확보... 채소류 건조가공사업 추진

완주군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66억원을 확보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각 지역의 농특산물을 이용해 특화된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다.

12일 완주군은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에서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으로 선정돼 총 사업비 6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30억, 군비 36억이 투자된다.

완주군이 추진하는 채소류 건조가공사업은 '자연 그대로'라는 명칭으로 추진되며, 농식품 소비트렌드에 발맞춰 조리편의제품, 과일 및 채소건조 간식제품 등을 상품화한다.



완주군이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에 선정돼 총 사업비 66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지역에서 생산되는 마늘, 당근, 양파, 호박, 대파 등 다양한 채소류를 B2B(기업간 거래),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 등과 같은 시장요구에 맞춘 맞춤형 상품으로 개발한다.

채소 건조시장은 유럽, 북아시아, 북아메리카 등에서 이미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시간단축'과 '간편'이라는 소비트렌드와 맞물려 해마다 시장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2인 가구, 고령층 가구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조리가 불편한 신선채소류 구매율이 감소하고, 편의성이 강조된 건조된 채소의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이번 사업을 위해 전담 사업단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며 "사업이 본격화에 오르면 원료 농산물 계약체계를 통한 새로운 수요 창출과 생산 농업인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완주군, 중증장애인 맞춤형서비스 지원

중증장애인가구 시설교체·상담치료 등 진행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이 중증장애인가구 300명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했다.

지난 11일 완주군은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을 통해 지난 달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가정에게 시설교체, 상담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용진읍에 거주하는 A씨는 정신 2급 장애와 감상신기능 저하증을 앓고 있다. 특히 주거시설이 열악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용진읍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시설개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시설이 열악해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판단, 제3차 장애인서비스지원위원회에 안전을 상징한

후 지원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화장실 세면대와 변기, 부엌싱크대, 다용도실의 3곳의 출입문을 원주지역자활센터와 예비사회적기업 스펀코에서 수리 교체해줬다.

또한 알코올 의존증인 남편과 학교 밖 청소년으로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위해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는 심리상담치료를 지원했다. 완주군사회복지협의회 좋은 이웃에서는 세탁기를 후원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장애등급제개편 시범사업 지역인 삼례, 봉동, 용진, 이서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300명은 민간 자원 연계서비스, 활동보조, 보조기기, 신규서비스(응급안전, 야간순회, 보행훈련) 등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보건복지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완주군이 중증장애인가구 300명에게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7가지 비법’

김제지평선아카데미, 14일 오후 3시부터 강연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오는 14일 오후 3시부터 김제시청 지하대강당에서 치유전문가 박삼미 서울여자대학교 언론방송학부 초빙교수를 초청하여 '어떤 고난도 이겨내는 7가지 비법'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날은 나를 믿고 공감하고 응원해 주는 한 사람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반듯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치유 인문학 강연이 펼쳐진다.

박삼미 교수는 문학, 상담심리학, 대중문화, 영화를 두루 전공했으며 문화평론가, 동화작가,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등으로 활동하며

대학, 기업, 교도소등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마지막에는 사람이 온다' 등이 있으며 스포츠 경향에 박삼미의 고민 사전을 연재 중이다.

또한 이날 식점문화 공연은 봉남면 주민자치센터 체조교실의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체조 공연이 함께 할 예정이다.

평생학습시대와 함께하는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강연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강연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김제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며 다음주 21일은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로 휴강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소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정

완주군 소양면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선정돼 국비 41억을 확보했다.

12일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18년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일반지구)에 소양면이 최종 선정돼 4년 동안 국비 41억, 지방비 18억 등 총 59억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면 소재지의 중심기능을 강화해 배후마을에 교육, 문화, 복지 등 생활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제 활력 창출, 농촌 공동체 활동, 거점 기능을 강화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생활권 구현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면사무소에서 소양초등학교에 이르는 구간에 안전한 거리조성, 간판정비, 소양원 제방에 주민들의 운동과 여가를 위한 산책로 등을 조성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좋은 성과를 내게 돼 큰 보람을 느낀다"며, "다함께 열어가게 으뜸도시 완주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이 담긴 것이라고 여기고,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이번에 선정된 소양면 이외에도 기존 농촌중심지 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삼례, 이서, 고산 3개 지구에 2019년까지 총 193억원(국비 135억원)을 투자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완주=이종복 기자

향후 소양면은 청사 신축 후 남게 되는 현 면사무소 자리에 생활문화센터, 역사문화체험센터를 현 주민자치센터에는 커뮤니티 활성화센터를 조성한다.

김제시여협, 우리 마을 지킴이 육성 간담회 개최

김제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임익주)가 12일 지평선아카데미 대강당에서 여성단체 및 우리마을지킴이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 마을 지킴이 육성' 간담회를 가졌다.

'우리마을 지킴이'는 2017년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및 여성사회참여 확대 공모사업인 웃음꽃 피는 여성가족친화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품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회원들은 여성친화도시인 김제시의 아동 및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고, 더불어 지역의 안전을 시민 스스로 지키고 실천하기 위한 우리 마을 지킴이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명농산물 판매소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마산업과
063-430-2951